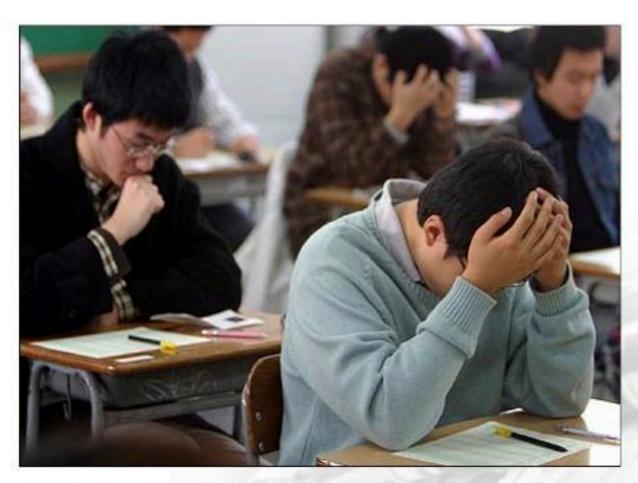
오해 1. 과학은 공식이다?



과학은 생각이다!

진실 1. 과학자처럼 생각하기



오해 2. 과학은 모순된다?



- 진리는 불변의 속성을, 발전은 변화의 속성을 지닌다.
- 어떤 것이 동시에 불변하면서 변화하는 모순되는 속성을 동시에 지닐 수 있을까?

2. 귀납적 증거의 중요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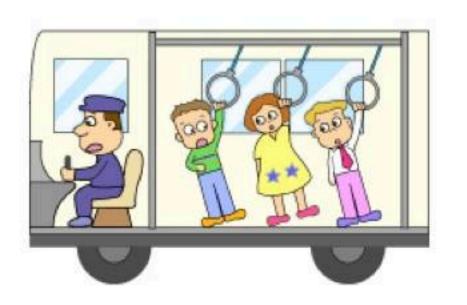


- 까마귀는 까맣다.
- 관찰 가능한 모든 까마귀를 관찰한 뒤 귀납적으로 얻어진 결론.
- 과학은 귀납적인 진리이다.
- 귀납은 증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믿을만하지만, 현실적으로 모든 증거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옳을 수가 없으며, 언제 든 새로운 증거에 의해 반박당할 가능성을 지닌다.
- '변화하는 진실'이라는 것이 과학의 커다란 속성이다.

과학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?

- 과학에 대한 오해들은 우리의 삶에서 과학을 논외로 놓는 경향을 만들어냈다.
- 과학(science, 科學)이란, 말 그대로 '자연에 대한 지식'이자 ' 보편적인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합리적인 사고 체계'라는 뜻을 답고 있다.
- 모든 사람이 과학자가 될 필요는 없다. 하지만 생각은 누구나 한다.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을 익혀 보는 건 어떨까?

1. 더 나은 행동전략을 찾아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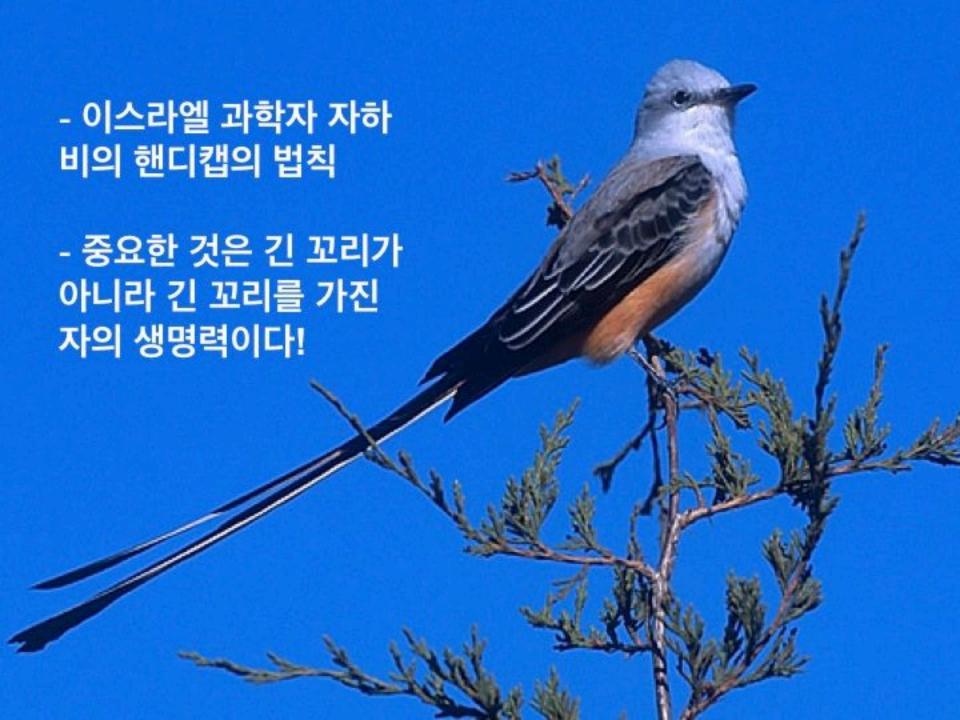




- 관성의 법칙에 따라 급제동시에는 앞으로, 급출발시에 는 뒤로 몸이 쏠린다.
- 관성이 뭔지 몰라도 상관없다. 반복되는 과정에서 규칙성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과학적 사고의 시작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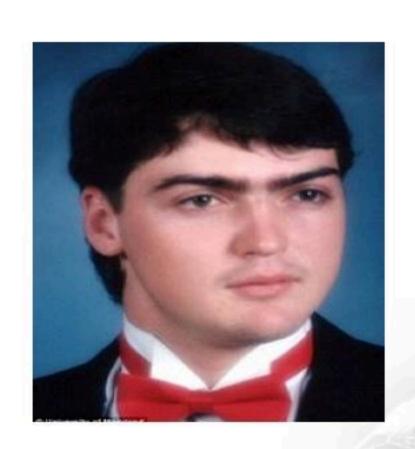
2. 인과성을 따져라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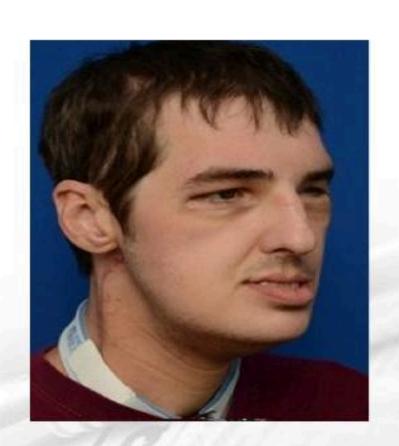




5. 어느 쪽이 더 인간적인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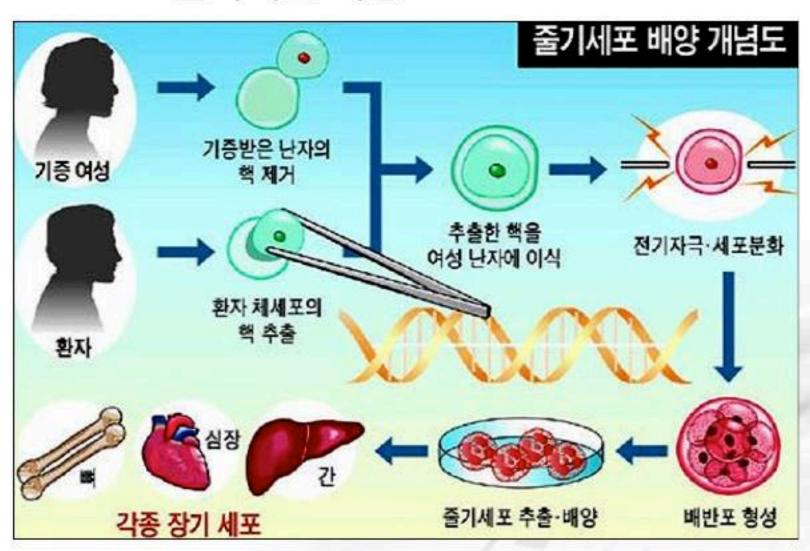
• 만약 당신이 사고로 신체를 잃었다면?





면역 거부 반응 문제는?

• 줄기세포 이용



윤리적 문제는?

• 기계를 이용하라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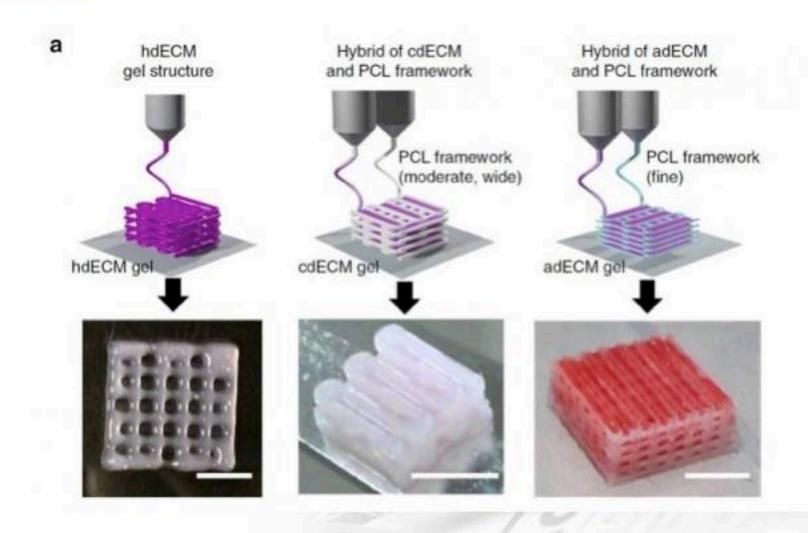
경제적 문제는?

• 로보핸드 프로그램





생체 적합성의 문제는?



내게 맞는 과학을 찾자.





